

하롱만과 간흡충 유행지 란빈

채 종 일 · 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



◀ 28 ▲ 간흡충 유행지역에서 조사를 마치고

하롱만(Halong Bay)에서의 1박2일

점 심 식사 후에는 관광을 위해 동북쪽으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하롱만(下龍灣)으로 이동하였다. 하롱만은 중국 국경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안가로 수백-수천 개의 작은 섬들이 용의 지느러미처럼 줄지어 솟아 나와 있어 마치 용이 내려온 것 같다 하여 붙인 이름이라 한다.

하롱만으로 돌아드는 커브 길에서부터 그 절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하롱시에 도착하여 바라본 바다는 말 그대로 울창한 섬들의 숲이었고, “바다의

계림”(중국 계림 지역 산과 계곡의 절경이 바다에 그대로 재현되었다 함)이라 할만큼 신비하고, 수려하였다.

전세 배를 타고 섬들의 숲을 한 바퀴 돌아보니 2시간이 넘게 소요되었다. 신비한 동굴이 있다는 데 마감 시간이 되어 아쉽게도 관

람하지 못하고 말았으나 맑은 바닷물과 기암 절경인 섬들의 숲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행은 만족, 그 이상이었다.

배에 같이 탄 키 작은 아가씨가 온갖 기념품을 보따리에서 풀어 내놓고 판촉을 하는데 누군가 했더니 바로 선주의 동생쯤 되는 모양이었다. 반바지 하나에 50,000동(dong)씩 받으니 우리 돈으로는 약 4,000원 정도였다(미화 1불 ; 약 14,000 dong). 그리 비싸지 않아 한 벌씩 사 주었다.

배를 내린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중급 정도의 호텔에 들었다.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 중에 있었으나 아직은 호

텔의 규모나 시설 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었고, 호텔에서 만난 외국 관광객들은 대다수가 중국인들이었다. 해변가에 자리한 수많은 기념품 가게들은 값이 비싼 편이어서 우리는 그다지 살 마음이 없었고 유럽 쪽에서 온 관광객들만 제법 사는 편이었다.

해변가의 야외 매점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다가 재미있는 일을 겪게 되었다. 저녁 8-9시경이었는데 손님이 거의 없긴 했지만 종업원들이 모두 실내로 들어가 버리고 없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들은 모두 실내에서 깔깔거리고 손뼉을 치고 웃느라고 정신들이 없었다. 내실 쪽으로 들여다보았더니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장면은 놀랍게도 “최불암”과 “박원숙”이 등장하는 “그대, 그리고 나” 드라마였다. 대사는 베트남 말로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으니 무척 놀랄 수밖에...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이 드라마가 베트남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 시간대에 종업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리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다가 남국장님이 또 낚시를 들려다보며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웃으며 손짓으로 몇 번 표시했더니 방안에 있던 모든 눈동자가 일제히 남국장님을 향하는 것이 아닌가? 한 아가씨는 미소를 지으며 바깥까지 따라 나왔다. 그 덕분인지 맥주 값의 일부를 깎아 주기도하여 또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었다.

간흡충 유행지 란빈(Lanvinh)에서 또 한번의 에피소드가...

아침 일찍 빵과 주스로 간단히 아침식사를 한 후 다시 하노이로 향하였다. 그 날은 동행했던 Son 박사가 어류를 채집한 경험이 있다는 란빈(Lanvinh)이라는 하노이 남동쪽의 간흡충 유행지까지 가서 견학하기로 계획하였다. 도중에 하노이에 들러 전날과 비슷한 포(국수)로 점심을 하고는 곧바로 현지로 출발하였다.

란빈에 도착해보니 오후 4시경이었다. 주변 경관이 어찌면 그렇게 우리 나라 김해와 비슷한지 신기할 정도였다. 논과 논 사이로 군데군데 수로가 통하고 있고, 집의 모양, 길의 구조 등등, 그리고 자그마한 그물로 송사리들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여기에서도 우선 시장에 들러 간흡충의 중요한 중간숙주인 참붕어(우리 나라, 중국)나 이와 비슷한 물고기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찾는 그런 물고기는 찾을 수 없었고, 수로에서 아이들이 잡은 다른 종류의 물고기 십여 마리를 500동(한국 돈 40원 정도) 주고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면밀히 검사했음에도 간흡충의 피낭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아쉬웠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면 중요한 물고기 종류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수로 몇 군데에서 간흡충의 패류 숙주가 되는 우렁이류(Bithynia sp.?)의 분포를 확인하였고 몇 마리를 채집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수확이었다.

현지에서 하노이로 출발하기 직전에 갈증도 나고 하여 찾집에 잠깐 들르게 되었다. 여기서 또 한번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겪게 된다. 그 찾집에는 날씬한 몸매의 예쁘게 차린 아주머니가 있었고 남편인 듯한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자 매우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런데 벽을 보니 아주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이 20장 정도 붙어 있는 큰 사진틀이 하나 걸려 있었다. 매우 귀엽고 예쁜 얼굴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칭찬을 해주었는데 그로부터 그 아주머니의 시선은 서서히 우리 남국장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 시선이 너무나 교묘하고, 선정적이어서 우리를 당

혹케 하기에 충분하였고, 급기야는 남국장님과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게 되었다(나머지 일행도 함께 찍었으나 들러리였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자기 집 주소를 써 주며 사진을 꼭 보내달라 하면서, 남국장님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 때 남편으로 보이는 양반의 표정을 보니 상당히 일그러져 굳은 표정이었다.

서둘러 인사를 하고 차에 오른 우리 일행은 한바탕 웃음을 금치 못하였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가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베트남은 재산 소유 등 여러 면에서 여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많고, 이 경우 여성은 남편 눈치 볼 것 없이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교제 및 성생활까지 할 수 있으며, 그래도 남편은 이를 묵인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으나 베트남에서 1년을 지내신 회장님까지 이에 수긍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꼼짝없이 베트남 여인의 유혹의 대상이 되셨던, 매력적이고 남성미 넘치는 우리 국장님 덕분에 이번 여행의 재미는 한층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다음 일정으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 “라오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7]

(다음 호에 계속)